오층탑

국보

높이 16.1m 의 이 탑은 야외에 세워진 오층탑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작은 것이자, 호류지 절의 오층탑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기도 합니다. 8 세기 후반에 세워졌으며 지붕은 편백나무 껍질을 이은 히와다부키 지붕으로 되어 있고, 최상부에는 일반적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우산과 같은 형상의 보개와 항아리 모양의 보병이라는 특이한 장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
이 탑은 석가모니를 모시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무로우지 절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한데, 봄의 석남꽃이나 가을의 단풍을 배경으로 한 풍경이 특히 훌륭합니다. 1998 년에는 태풍으로 큰 나무가 탑으로 쓰러지면서 큰 손상을 입었지만, 국내외에서 불교도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기부가 이어진 덕에 탑은 2 년에 걸쳐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.